DBpia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6, pp.207-252
https://doi.org/10.29212/mh.2018..106.6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요인에 대한 군사전략적 분석

- 기동전략과 소모전략을 중심으로 -

김대성*

1. 서 론
2. 이론적 논의 : 기동전략과 소모전략
3. 인천상륙작전 시 북한군과 유엔군의 군사전략
4. 북한군의 전쟁수행과정 분석
5. 유엔군의 전쟁수행과정 분석
6. 결 론

1. 서 론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꾼 사건이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고 보름도 지나지 않아 6월 25일 기습 남침 이후 낙동강방어선까지 유엔군을 거세게 몰아붙였던 북한군은

* 합동참모본부

www.dbpia.co.kr

완전히 붕괴되어 북으로 패퇴하기 시작하였고, 유엔군은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고 10월 1일에는 38선을 넘어 북진하게 되면서 6·25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인천상륙작전은 6·25전쟁뿐만 아니라 역사상 다른 전사를 통틀어 가장 성공적인 작전사례로 평가받으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요인을 기습달성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인천상륙작전은 완벽한 기습을 달성한 작전이었으며, 이에 따라 북한군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1)]

이와는 반대로 북한군은 인천상륙작전을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서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2)] 또 다른 주장들로는 북한군이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었으나 상륙장소와 일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하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인천상륙작전은 사실상 기습이라는 연구도 있다.[3)]

현재 전쟁연구에 있어 정치적 수준, 군사전략적 수준, 작전적 수준, 전술적 수준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작전적·전술적 수준에서 유엔군의 기습달성과 이에 대응한 북한군의 준비 여부에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요인을 찾고 있다. 물론, 인천상륙작전에서 유엔군은 북한군에 대해 기습을 달성했고, 이것이 작전의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천상륙작전은 단지 인천에 국한된 상륙작전이 아니라

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上)』(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pp.392-414; Robert D. Heinl, "The Inchon landing: A Case Study in Amphibious Planning", *Naval War College Review*(Spring 1998); Jim Dorschner, "Douglas MacArthers Last Triumph", *Military History*(2002); Jeffery A. Bradford,"MacArthur, Inchon and the Art of Battle Command", *Military Review*(Mar/Apr. 2001).
2) 박명림, 『한국 1950-전쟁과 평화』(서울: 나남출판, 2002), pp.407-410.
3) 김광수, "인천상륙작전은 기습이 아니었는가?", 『전사』 제2호(1999).

www.dbpia.co.kr

미 10군단의 인천상륙과 서울확보, 미 8군에 의한 낙동강 전선에서의 반격작전, 그리고 미 10군단과 미 8군의 연결작전이 결합된 형태의 대규모 전역이었다. 인천상륙작전을 이러한 대규모 전역으로 볼 때, 작전의 성공을 단순히 기습달성이라는 미시적인 수준의 단일요인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공자의 전략과 방자의 전략이 충돌하여 상호작용하는 전쟁의 기본적인 속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군사전략에 대한 많은 기존연구들은 그동안 전쟁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어 왔던 절대적인 군사력, 즉 물리적인 힘(physical power)보다는 주어진 군사력을 어떻게 운용하는가와 관련된 군사전략이 더 전쟁결과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4] 따라서, 인천상륙작전의 근본적인 성공요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군사전략적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요인을 군사전략적 분석을 통해서 도출하고자 한다. 군사전략적 분석이란 인천상륙작전 당시 북한군이 추구했던 군사전략과 유엔군이 추구했던 군사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양측의 전쟁수행과정을 분석하여 각자가 추구했던 군사전략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도출해 내는 것이다.

---

4) 군사전략이 전쟁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은 다음을 참조. John J. Mearsheimer, *Conventional Deterren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D. S. Bennett and Allan C. Stam Ⅲ, "The Duration of Interstate Wars, 1816-1985",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0 (June, 1996); Robert Anthony Pape, *Bombing to win: Air power and coercion in war*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Stephen Biddle, *Military Power: Explaining victory and defeat in modern battl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Allan C. Stam Ⅲ, *Win, loss, or draw: Domestic politics and the crucible of war*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6); Ivan Arreguin-Toft, "How the weak win wars: A theory of asymmetric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1(2001).

www.dbpia.co.kr

이를 위해서 먼저 군사전략의 개념과 유형을 고찰하여, 군사전략을 대표적으로 기동전략과 소모전략으로 유형화하고 이들의 개념, 특징, 수행방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 전략들의 성공요인을 도출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천상륙작전 시 북한군과 유엔군이 추구한 군사전략이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 분석하고, 양측에 해당하는 군사전략 유형의 적용을 통해 인천상륙작전의 군사전략적 성공요인을 도출할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 기동전략과 소모전략

가. 군사전략의 개념과 유형화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요인을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군사전략의 개념을 이해하고 어떠한 유형의 군사전략을 적용하여 분석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특히, 군사전략은 그 개념과 유형화에 있어 학자들마다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정확한 분석의 중점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군사전략의 개념을 살펴보면, 군사전략의 개념이 문헌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기원전 5세기 중국의 전략가인 손자가 쓴 손자병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5] 현대 군사전략의 토대는 클라우제비츠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볼 수 있다.[6] 클라우제비츠는 전술과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전술은 전장에서 군사력의 사용을 가르치는 것이고, 전략은 전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술을 사용하는 것이다.”[7]

5) Sun Tzu, *The Art of War*, Translated by S. B. Griffit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6) Carl Von Clausewitz, *On War*, Translated and edited by M. Howard and p.Pare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7) Carl Von Clausewitz, *On War*, p.128.

www.dbpia.co.kr

또한 영국의 저명한 전략가인 리델하트는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들을 적용하고 배분하는 술(術)"이라고 정의하였다.[8] 포젠은 "국가가 어떻게 자신의 안보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다루는 국가의 이론체계"로 정의하면서, 비군사적 요소들도 포함시켰다.[9]

따라서 군사전략은 국가차원의 대전략(grand strategy)[10]이나 매우 특수한 전장의 목표(battlefield goals)를 확보하기 위해 작은 부대들을 운용하는 전술(tactics)과도 차별화된다.[11] 분명한 것은 군사전략이 전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 전장에서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관련하여 최상위에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군사전략에 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결국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군사전략은 군사력을 통해 승리를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12]

---

8) B. H. Liddell Hart, *Strategy* (New York: Praeger, 1962), p.335.

9) B. R. Posen, *The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France, Britain, and the Germany Between the World War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p.13.

10) 국가전략과 군사전략의 유형과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박영준, "국가전략과 군사전략: 한국적 군사전략 정립을 위한 방향성",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2008. 8), pp.229-244.

11) 군사전략과 정치기조(Political Doctrine)의 구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Allan C. Stam Ⅲ, *Win, Lose, or Draw : Domestic Politics and the Crucible of War*(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1996); 군사전략과 전술의 구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 Allan R. Millett, Williamson Murray, and Kenneth H. Watman., "The effectiveness of military organizations", *In The first world war*, edited by Allan R. Miliett and Williamson Murray (Boston: Allen and Unwin, 1988). pp.1-30.

12) Alan Stephens and Nicola Baker, *Making Sense of War: Strategy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p.1-10. 군사전략의 구성요소는 크게 목표, 수단, 방법의 3가지로 볼 수 있다. 전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objectives),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means), 수단들을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다루는 방법(ways)이 군사전략의 3가지 구성요소이다. Arthur F. Lykke, Jr., "Towards an Understanding of Military Strategy", *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 (Carlisle Barracks, PA: Department of Military Strategy, Planningm, and

www.dbpia.co.kr

보다 구체적으로 군사전략은 단일지역에서의 단순한 물리적인 충돌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전술적 차원 이상의 다양한 교전 또는 전투들을 승리 달성을 위해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군사전략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유형화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다.[13]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과 관련된 대표적인 군사전략의 유형화를 생각해본다면, 기동전략(maneuver strategy), 소모전략(attrition strateg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전쟁을 다룬 많은 연구들이 기동전략과 소모전략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해 왔다.[14] 특히, 기동전략과 소모전략은 전장에서 주어진 군사력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의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은 기동전략과 소모전략이 화력과 기동을 어떻게 조합하여 전쟁을 수행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왜 기동전략과 소모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동전략과 소모전략의 구분은 전쟁수행에 있서 가장 기본적인 2가지 수단인 부대이동(movement)과 화력(fire)을 전쟁목적 달성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 둘째, 기동과 소모의 개념에 따른 전략의 구분은 공자와 방자 모두를 단일 스펙트럼 상에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기동과 화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궁극적인 기동전략과 소모전략의 형태는 양 극단에 위치하며, 이를 통해 균형된 분석이 가능하다. 셋째, 기동

Operation, U.S. Army War College, 1982), p.1.

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박창희, 『군사전략론: 국가대전략과 작전술의 원천』(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p.7.

14) Allan C. Stam Ⅲ, *Win, Lose, or Draw: Domestic Politics and the Crucible of War*; John F. Antal,"Maneuver versus attrition: A historical perspective", *Military Review,* Vol. 72(1992), pp.21-33; Edward Luttwak, *Strategy: The Logic of War and Peace*(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pp.96-106.

www.dbpia.co.kr

전략과 소모전략은 전쟁수행자체를 다룬다. 기동전략과 소모전략은 상대방의 군사력에 초점을 맞추어, 어떻게 승리를 달성할 것인가에 집중한다. 즉, 전쟁수행자체만을 다루기 때문에 다른 변수들의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나. 기동전략과 소모전략의 개념과 수행방법

그렇다면 기동전략과 소모전략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의 해답은 각 전략의 개념과 수행방법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다. 즉, 각 전략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전략들이 추구하는 개념과 수행방법에 맞게 전쟁이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전략들의 개념과 수행방법을 기초로 기동전략과 소모전략의 성공요인을 도출한다.

먼저, 기동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동(機動)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동은 단순히 이동하거나 적보다 양호한 위치로의 이동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보다 우세한 템포(Tempo)로 적보다 빨리 움직여 적을 격파하는 모든 전쟁양상을 의미한다.[15]

로버트 레오나드(Robert R. Leonhard)는 "기동전략은 적의 전투력을 단순히 격멸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반수단을 통하여 승리를 추구한다."고 정의하고 있다.[16] 또한 에드워드 루트왁(Edward Luttwak)은 기동전략을 "적의 물리적인 실체를 파괴하기 보다는 조직와해에 의한 무능화를 목적으로 삼는다. 조직에는 적 부대의 지휘구조, 적의 보급지원, 적의 전쟁방식, 또는 실제 기술체계 등이 해당된다."고

15) Richard Hooker, Jr. ed., *Maneuver Warfare: an Anthology* (Novato, CA: Presidio Press, 1993), pp.3-4.
16) Robert Leonard, *The Art of Maneuver* (Novato, CA: Presidio Press, 1991), p.51.

www.dbpia.co.kr

정의했다.[17] 리처드 심킨(Richard E. Simpkin)은 "기동전략은 선제 또는 최초 기습으로 결정적 결과를 달성하는 것이며, 이에 실패할 경우 반응의 속도 및 접합성에 의하여 의지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추구한다."고 정의하고 있다.[18]

기동전략의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점을 회피하고 약점을 공격한다. 이를 위해서 기동전략은 적이 배치된 강점을 회피하고 적의 약점이나 명백한 취약점들을 공격하며, 이를 통해 시간과 공간 상에서 적을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만드는 것을 추구한다. 이때 기동은 적의 사기나 결집력을 분쇄하거나 적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도록 전투력을 집중하는데 사용된다.[19] 이러한 맥락에서 레오나드는 기동전략이 목표로 하는 것은 적의 '결정적인 취약점(critical vulnerability)'이며, 적을 공격함으로써 적의 능력을 단순히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의 전투력이 마비(paralysis)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0]

둘째, 기동템포의 우위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다. 기동전략의 본질은 적의 전쟁수행 템포(tempo)의 와해를 목적으로 한다.[21] 적이 반응할 수 있는 정도보다 더 빨리 움직이고, 적이 우리의 조치에 대응할 수

17) Edward Luttwak, *Strategy: The Logic of War and Peace*, p.93.
18) 리처드 심킨(Richard E. Simpkin), 연제욱 역, 『기동전: Race to the Shift』(서울: 책세상, 1999), pp.81-83.
19) William S. Lind, "The Theory and Practice of Maneuver Warfare", Richard Hooker, Jr.. ed., *Maneuver warfare an Anthology*, pp.3-8; Robert Leonard, *The Art of Maneuver*, p.18, 61, 181.
20) Robert Leonard, *The Art of Maneuver*, p.20. 결정적인 취약점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 Joseph L. Strange, *Centers of Gravity & Critical Vulnerabilities* (Quantico, VA: U.S. Marine Corps Association, 1996); Dale C. Eikmeier, "Center of Gravity Analysis", *Military Review* (July-August 2004); Joseph L. Strange and Richard Iron, "Center of Gravity: What Clausewitz Really Meant", *JFQ*, Vol. 34(2004).
21) Robert R. Leonhard, "Maneuver Warfare and the United States Army", Richard Hooker, Jr.. ed., *Maneuver warfare an Anthology*, p.52.

www.dbpia.co.kr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반응함으로써, 적의 능력을 체계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22] 적에 비해 아군의 상대적인 템포가 빨라지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적이 아군의 행동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의 양이 커지다가, 결국 적은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게 된다.[23] 이러한 상황에 도달하며 적의 전쟁수행의지는 무력화된다. 린드(William S. Lind)는 "기동전략은 적 병력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싸우고자 하는 적의 능력을 분쇄하는 것이며, 적 지휘관들을 공황상태에 빠지게 하여 무력화시키는 것이다."[24] 라고 하여 적의 전투의지를 마비 및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기동전략의 성공요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셋째, 순차적 작전수행과 임무형 지휘를 강조한다. 기동전략은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 정교하게 계획된 작전들의 순차적 수행과 단계별 성공이 요구된다. 즉, 기동전략은 적의 약점에 전투력을 집중하기 위해서 일련의 작전수행절차를 따르게 되면, 이러한 각 단계별 작전수행은 바로 전 단계의 순차적인 성공을 전제로 하게 된다. 만일 전 단계에서 작전이 원활하게 수행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성공가능성은 극히 적어진다.

지금까지 기동전략의 개념과 수행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기동전략에 대응되는 소모전략은 기동전략과 전혀 다른 개념, 특성, 수행방법을 추구하는 전략형태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듀푸이(Trevor N.

---

22) 기동전략에서 기동템포의 우위에 따른 효과와 영향은 존 보이드(John Boyd)에 의해 정립되었다. William S. Lind, "The Theory and Practice of Maneuver Warfare", Richard Hooker, Jr.. ed., Maneuver warfare an Anthology (Novato. CA: Presidio Press, 1993), pp.8-9.

23) Richard Hooker, Jr.. ed., *Maneuver warfare an Anthology*, p.9; Robert Leonard, *The Art of Maneuver*, p.16, 58; Martin Van Creveld, Kenneth S. Brower and Steven Canby, *Air power and Maneuver Warfare*(Air University Press, 1994), pp.3-4, p.238.

24) Gary Hart and William S. Lind, *America Can Win* (Bethesda, Md.: Adler and Adler Publishing, 1986), pp.30-31.

www.dbpia.co.kr

Dupuy)는 소모라는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소모는 전투에서 적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전투력의 손실이다."[25] 소모는 손실율(loss rates)로 가장 잘 이해 및 분석될 수 있다. 소모율은 부대의 전투력을 나타내는 비율 또는 특정기간 당 병력손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26]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는 소모전략에 대해 "소모전략은 수많은 개별 전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적을 약화시키고 패배시키는 전략이다. 즉, 적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해서 타격하고 적의 전투력을 고갈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전략이다."[27] 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소모전략은 적의 전투력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파괴하여 승리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소모전략에서는 비슷한 전투와 전술이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물질적으로 적보다 우세하며 충분한 보급을 받는 부대가 있을 경우, 승리는 수학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28] 때문에 에드워드 루트왁도 "전개할 수 있는 더 많은 병력은 더 큰 소모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작전적 수준에서 주로 정면공격으로 구성된 단순한 특성을 가진 전술적 행동들은 조직화되기 보다는 더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29]

소모전략은 어떻게 수행되는가? 첫째, 소모전략은 물리적 파괴의 누적에 의한 승리를 추구한다. 에드워드 루트왁은 이에 대해 "소모전은

25) Col Trevor N. Dupuy, *Understanding War: History and Theory of Combat* (New York; Paragon House Publishers, 1987), p.165.
26) Col Trevor N. Dupuy, *Understanding War: History and Theory of Combat*, p.166.
27) John Mearsheimer, *Conventional Deterrence*, p.29.
28) Edward Luttwak, *Strategy: The Logic of War and Peace*, p.92.
29) Edward Luttwak, "The Operational Level of War",*International Security*, Vol. 5(Winter 1980-81), p.77.

www.dbpia.co.kr

공업적인 방식에 의하여 수행되는 전쟁이다. 적을 단순히 정렬되어 있는 표적으로 취급한다. 전쟁의 승리는 통상적인 경우처럼 후퇴 또는 항복으로 그 과정이 종결되지 않는다면 우세한 화력과 물자의 우위를 통한 누적되는 효과를 통해 표적으로 할당된 모든 적을 파괴함으로써 달성된다."[30]고 표현하여 소모전략이 파괴의 누적을 통해 승리를 추구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소모전략은 적의 핵심능력과 중심을 격파하기 위해 가용한 군사력을 연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집중한다. 군사전략과 작전술 수준에서 적의 중심과 핵심 능력은 일반적으로 적의 군사력이다.[31] 클라우제비츠는 "크기에 관계없이 전장에 주둔하는 병력이 유일한 중력의 중심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곳은 결심이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이다."[32]고 하여 이 같은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조미니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적 군대를 격파하는 것이라고 기술하였다.[33]

둘째, 파괴템포의 우위 확보에 중점을 둔다. 파괴템포 우위란 가용한 병력과 화력의 효율적인 집중을 통해서 적보다 파괴율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동전략이 적을 패배시킨 후 파괴를 시도하지만 소모전략은 적 부대의 파괴를 승리의 결과라기보다는 승리의 요소로 간주한다.[34] 이처럼 소모전략은 주로 적 병력의 파괴를 통해 승리를 달성하고자 하기 때문에 소모전략의 관점에서 적에게 승리하는 첩경은 병력과 화력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이다. 이를 통해서 병력 운용에 있어 최대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서 세부 계획 형식의 과학적 관

30) Edward Luttwak, *Strategy: The Logic of War and Peace*, p.92.
31) Joseph L. Strange and Richard Iron, 허종준, 김홍석 역, *Understanding Centers of Gravity and Critical Vulnerabilities* (서울: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2008), p.36.
32) Carl Von Clausewitz, *On War*, p.487.
33) Baron De Jomini, trans, CPT G.H. Mendell and LT W. p.Craighill, *The Art of War* (Westport, CN: Greenwood Press Publishers, 1862), pp.89-90.
34) Robert R. Leonhard, "Maneuver Warfare and the United States Army", *Maneuver Warfare: An Anthology,* p.52.

www.dbpia.co.kr

리, 자원관리, 적극적 중앙통제가 강조된다. 따라서 소모전략에 의한 전쟁수행은 예측 가능하며, 전쟁의 전개가 느리다.[35]

셋째, 중앙집권적 통제(신중한 전진과 후퇴)를 강조하는 전쟁수행방식을 취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모전략은 병력과 화력의 최대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로 중앙집권적 통제방식을 사용한다. 중앙집권적 통제는 많은 병력을 지정된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대량의 화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준다.[36]

다. 기동전략과 소모전략의 성공요인

지금까지 기동전략과 소모전략의 개념과 수행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각 전략별 개념과 수행방법은 각 전략별로 고유한 성공요인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해준다. 즉, 각 전략의 성공은 해당 전략이 추구하는 개념과 수행방법에 맞게 전쟁이 수행되었을 때 보장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기동전략과 소모전략의 성공요인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기동전략과 소모전략의 성공요인

기 동 전 략	소 모 전 략
1. 강점회피와 약점의 공격 (약점의 식별과 군사력 집중) 2. 기동템포의 우위 달성 (적의 전투의지 와해 및 무력화) 3. 순차적 작전수행 달성 (계획된 작전단계의 성공적 연결)	1. 물리적 파괴의 누적 강요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전투수행) 2. 파괴템포의 우위 확보 (병력과 화력의 우세 달성) 3. 중앙집권적 통제에 의한 전쟁수행 (병력과 화력의 효율적 운영)

35) John F. Antal, "Thoughts About Maneuver Warfare", *Maneuver Warfare: An Anthology*(Novato, CA: Presidio, 1993), pp.62-63.
36) John F. Antal, "Thoughts About Maneuver Warfare", Hooker Jr., Richard, ed. Maneuver Warfare: An Anthology, pp.67-68.

www.dbpia.co.kr

〈표 1〉에 정리된 기동전략과 소모전략의 성공요인들은 인천상륙작전의 군사전략적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분석틀을 제공해 준다. 인천상륙작전 시 북한군과 유엔군의 군사전략 유형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식별하고 그 유형에 따른 성공요인들을 대입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인천상륙작전 시 북한군과 유엔군의 군사전략

가. 북한군의 군사전략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기 전인 9월 초까지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에서 계속 공격 중이었다. 7월 말에서 8월 초까지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되고 전선이 고착되기 전까지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유엔군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낙동강 방어선이 형성되면서 전쟁양상은 후퇴와 추격의 양상에서 전선의 고착상태로 바뀌었다. 북한군은 9월 초까지 전 전선에서 공격을 실시했지만, 돌파구는 끝내 열리지 않았고, 유엔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이 개시 되자, 우선 북한군은 대응전략 마련에 고심했다. 당시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에 직면한 북한군에 대해 주은래(周恩來)는 대응전략을 조언했다. 이는 1950년 9월 18일 로시친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에서 나타난다.

> (상략).....중국 정부는 공식자료를 참고하여 몇 가지 일반적인 조언만을 강구했다고 한다. 첫째, 서울과 평양에 10만명 이상의 군이 배치돼 있다면 상륙에 성공한 적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만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주력부대는 북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미군의 공격에 대비해 방어선을 구축하고 적을 분산시킬 수 있는 작전이 계획되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소규모 기동대를 활용한 전술도 바람직하다. 둘째, 정예돌격대를 편성, 결정적인 공격시기까지는 이를 비밀에 붙여야 한다.....(하략)[37]

www.dbpia.co.kr

즉, 주은래는 낙동강 전선 후방에 유엔군의 상륙을 저지할 충분한(10만명) 병력이 있지 않다면 신속하게 낙동강 전선의 주력부대를 신속하게 38선 이북으로 철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던 것이다.

9월 18일 김일성은 중국대사 예지량(倪志亮)을 만난 자리에서 미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실행된 이후 3일 간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인천에 상륙한 미군부대가 1개 사단 규모로 예상되는 반면, 북한군은 전투경험이 없고 전투력이 약한 2개 연대가 방어하고 있으며, 증원부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은 서울로 오고 있다. 북한군은 장기전에 대비하여 10-15개의 사단을 편성하기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지량은 이를 주은래와 섭영진(聶榮臻)에게 보고했다.[38]

이 소식을 접한 주은래는 9월 20일 예지량에게 다시 전문을 보냈다. 주은래는 미국이 인천에 상륙할 가능성은 계속 있어 왔으며, 북한군은 장기전을 수행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어떻게 주력 부대를 보존하여 적을 괴멸시킬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주력부대는 적들에게 노출되고 전력 소모가 매우 큰 상태이므로 만약 적들이 서울을 점령한다면 퇴로가 차단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북한군 주력부대를 집결시킨 후 적의 약점을 찾아내어 각개 격파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다.[39] 즉, 병력소모가 큰 현상태에서는 가용병력을 최대한 집중하는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다.

전황과 중국의 조언을 고려할 때, 북한군이 선택한 수 있는 전략은 두 가지였다. 첫째, 후방에 반격에 충분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서울 주변의 모든 가용부대를 인천과 서울 방어에 투입하여 인천에 상륙한 적을 저지 또는 격퇴한 후 낙동강선에서 다시 공세를 개시하는 것이다.

---

37) 스탈린에게 보내는 로시친의 전보(1950년 9월 18일자), 폰드 45, 목록 1, 문서 331, 리스트 123-126, A. V. 토르쿠노프,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서울: 에티터, 1991), pp.189-191.

38)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오규열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p.185.

39)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오규열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 pp.185-186.

www.dbpia.co.kr

둘째, 서울 주변에 병력이 가용하지 않다면 낙동강의 전선을 축소하여 병력을 절약하고, 절약된 몇 개의 사단을 서울로 투입하여 후방의 예비 부대들과 함께 인천으로 상륙한 유엔군을 방어하는 사이에 신속하게 낙동강 전선의 부대들을 북쪽으로 이동시켜 유리한 지형에서 방어선을 형성하고 차후를 기약하는 것이었다.

당시 북한군의 상황을 고려할 때 두 번째 전략이 가장 적합했다. 하지만 김일성의 선택은 첫 번째 안에 가까운 것이었다. 9월 17일 김일성은 민족보위상이었던 최용건에게 인천과 서울 지역 방어를 위한 서해안 방어사령부의 구성을 지시했다.[40] 인천과 서울을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리고 민족보위상과 전선사령관에게 9월 30일까지 남한에서 인원을 동원하여 9개 사단, 북한에서 인원 동원을 통해 6개 사단을 편성하도록 지시했다.[41] 김일성은 주은래가 조언했던 인천과 서울 방어에 필요한 10만 명을 보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만들어 방어작전을 수행하고자 했던 것이다.

서해안 방어사령관에 임명된 최용건은 9월 17일 방어계획을 하달했다. 하달된 방어계획은 서울 서북쪽 25km 지점인 예성강과 한강의 하구에 1개 국경경비연대를 배치하고, 행주부터 한강교까지는 제31서울경비연대와 제78독립보병연대, 인천에서 영등포에 이르는 접근로에는 제18사단의 2개 연대, 수원은 신규 편성 중인 제70독립보병연대를 배치하여 방어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42] 또한 전선사령부 예하 공병대대는 인천-서울과 인천-수원 간의 도로 상에 대인지뢰 및 대전차지뢰를 설치하게 하였다.[43] 인천에서 서울에 이르는 주요 접근로 상에

40)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6권-조국해방전쟁사 2』(평양: 과학백과사 전출판사, 1993), p.22.
41) 김일성, 「급변하는 군사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 1950년 9월 17일), 『김일성전집』 제12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1995), p.309.
42)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8), p.250.

www.dbpia.co.kr

방어선을 형성하여 미 10군단의 서울 진격을 저지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한편, 인천에 유엔군이 상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전선사령부는 낙동강전선의 공격부대에 대하여 인천상륙 사실을 숨기고 공격작전을 독려하여 계속 낙동강 전선을 유지 또는 돌파하고자 기도하였다. 하지만 공격은 고사하고 이미 벌어진 전력차이는 더 이상의 방어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었다. 결국 9월 18일 다부동 북방에서 국군 제1사단이 북한군 제1사단과 제13사단 진지를 돌파하면서 낙동강선의 북한군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김일성은 낙동강 전선을 금강선과 소백산맥선으로 철수시켜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도록 하였다.[44]

이에 따라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작전방침을 수립하여 하달하였다. "최용건이 지휘하는 서해안 방어부대로 하여금 한강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미군의 진격을 반격하고 저지하여 서울을 사수한다. 낙동강 전선에서는 제1군단과 제2군단을 금강지역까지 전략적으로 후퇴하게 하고 소백산 방어선과 한강방어상의 부대와 함께 남하 및 북상중인 적의 연계를 저지한 이후, 전력을 집중하여 상륙한 적들을 소탕한다."[45]

낙동강 전선사령부의 김책은 9월 18일 제2군단에게 왜관 지역에 대한 사수와 현 전선의 유지를 강조하고 제1군단에 대해서는 예하부대를 남쪽에 위치한 부대부터 대전의 금강을 연하는 선까지 이동시킴으로써 포항-왜관-금강을 연하는 직선의 전선을 구축한 뒤 서울지역의 북한군 부대와 연결된 방어를 실시하고자 했다.[46] 북한군은 낙동강 전선이 돌파되기 시작한 후에야 전선을 후퇴, 축소하여 보다 견고한 방어선을 형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

43)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1』(서울: 고려원, 1990), pp.502-503.
4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⑥: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9), p.32.
45)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오규열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 pp.180.
46) 일본 육전사연구보급회, 『한국전쟁 제5권: 유엔군의 반격과 중공군의 개입』(서울: 명성출판사, 1987), p.103.

www.dbpia.co.kr

인천상륙작전이 개시된 후에 북한군이 취한 여러 가지 군사적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인천상륙작전 시 북한군이 추구한 군사전략은 소모전략에 기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북한군은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된 후에도 인천에 대한 방어에 치중하기 보다는 낙동강 전선에서 공격작전을 지속하고자 했다. 때문에 북한군은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한 후에도 인천의 방어를 위해 일부병력만 전용하여, 낙동강선에서 이루어진 정면공격 위주의 공격작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병력을 전선 상에 유지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김일성은 병력을 신속하게 집결시켜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전선을 축소하라는 주은래의 전략적 충고에도 불구하고 인천 방어를 위해 북한군 전체 중에서 극히 일부의 전투력만 인천과 서울 방어를 위해 전용하고 대부분의 주력을 낙동강 전선에 남겨두었다. 즉, 인천 방어를 위한 병력의 전용을 최소화하여 낙동강 전선에서 현 병력수준을 유지하면서 소모전략 위주의 공격작전을 지속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최초 추구했던 낙동강선에서의 지속적인 공격작전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북한군이 취한 조치도 현 전선을 축소하여 전선의 방어력을 높이는 동시에 보다 많은 병력을 인천 및 서울 방어에 투입한다는 것으로써 역시 소모전략의 개념에 기반한 것이었다.

나. 유엔군의 군사전략

인천상륙작전은 북한의 남침이 시작된 직후부터 구상되어온 작전이었다. 6월 25일 북한이 기습 남침을 개시한 후, 6월 30일 트루만 대통령에 의해서 미 지상군 투입이 결정되자 맥아더 장군은 작전구상을 마치고 우선 주일미군 중 한반도에서 최단거리에 주둔 중인 미 제24사단을 즉각 투입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맥아더는 북한군의 진격을

www.dbpia.co.kr

저지하는 동시에 “압도적인 공군력과 해군력을 이용, 북한군의 배후에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적을 격멸한다.”는 상륙작전을 구상했다.[47]

이러한 작전구상은 작전참모부장 라이트(Edwin K. Wright) 준장이 이끄는 합동전략기획 및 작전단(JSPOG: Joint Strategic Planning and Operations Group)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블루하트(Blue Hearts)’라는 암호 명칭이 부여되었다. 최초계획은 “미 제24사단과 제25사단 1개 연대전투단으로 적의 남침을 최대한 북쪽에서 저지하고, 미 해병대 및 제1기병사단으로 7월 22일에 인천으로 상륙시켜 북한군의 병참선을 차단한다.”는 것이다.[48]

그러나 블루하트 계획은 7월 10일 무렵 포기해야만 했다. 그것은 전선 방어부대들이 적의 남진을 저지하지 못함으로써 상륙작전보다는 현 전선을 안정시키는 것이 더 급박하였기 때문에 상륙부대로 예정된 미 제1기병사단을 방어전선에 투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49] 하지만 맥아더 장군은 전선 상황이 악화될수록 적의 후방에 대한 상륙작전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핵심 상륙지역으로 인천을 강조하면서 다른 상륙가능 지역도 그 가능성을 타진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미군의 합동전략기획작전단은 인천, 군산, 진남포, 해주, 원산, 주문진의 6개 해안지역을 상륙작전 지역으로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크로마이트(Chromite)라는 이름 아래 인천상륙계획(100-B), 군산상륙계획(100-C), 주문진상륙계획 (100-D) 등 3개 안을 작성하였다.[50]

---

47) MacArthur to JCS, 7 July 1950, *FRUS*. 1950. Vol. Ⅶ, p.336.
48) Roy E. Appleman, *United State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Yalu* (Washington, DC, 1961), pp.488-489.
49)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pp.82-85.
50) James F. Schnabel,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pp.141-146: Roy E. Appleman, *United State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Yalu*, pp.489-400.

www.dbpia.co.kr

이 계획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한국에 이동 중인 미 제1임시해병여단과 미국에서 일본으로 출발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미 제2보병사단을 상륙공격부대로 운용하고, 이들 부대의 상륙과 동시에 지상군이 남에서 반격으로 전환한다는 작전개념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8월 초, 인민군의 공세로 낙동강방어선의 서측이 붕괴직전에 이르자 상륙부대로 지정한 2개 부대가 도착과 동시에 낙동강전선에 투입됨으로써 상륙작전 계획의 실현은 다시 어려운 실정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합동전략기획작전단은 미 제1해병사단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일본에 남아 있는 마지막 사단인 미 제7보병사단을 가용부대로 하여 작전계획 100-B(인천상륙)를 완성하였고, 그 내용을 8월 18일 예하 및 관련부대에 하달하였다. 이 계획은 본질적으로 그동안 추진되어 온 상륙작전의 기본개념과 동일하지만 미 제1해병사단이 돌격상륙부대로, 인천-서울을 목표지역으로 결정하고 상륙부대와 낙동강전선의 미 제8군과의 협조된 작전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다만 이 계획은 후속상륙부대가 명시되지 않은 채 미 극동군사령부 예비 병력이라고만 언급되었으며 잠정 상륙일을 9월 15일로 결정하였다.

한때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은 반대에 부딪쳤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8월의 전선 상황에 대한 불안과 함께 인천상륙작전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미 합참은 되도록이면 인천상륙작전을 포기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관철시켰다.[51]

맥아더는 개전 초기부터 상륙작전을 기획하였으나 현 전선의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시행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낙동강 전선에서 유엔군이 북한군의 진격을 성공적으로 저지하여 북한군의 주력을

51) Walter Karig, Malcolm W. Cagle and Frank A. Manson,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New York: Rinehart, 1952), pp.166-168.

www.dbpia.co.kr

고착시키게 되면서 인천상륙작전의 시행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었고 맥아더는 이를 놓치지 않았다.

한편,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준비하는 동안에 낙동강 방어선에도 인천상륙작전과 연계하여 반격작전이 준비되고 있었다. 미 제8군은 9월 초에 인천상륙작전과 연계한 반격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 계획에 의하면, 반격일시는 9월 16일 09:00로 반격개시선은 현재 접촉선으로 각각 정해졌다.

이상과 같은 미 제8군의 반격계획은 9월 7일 동경사령부의 인가를 받아 15일 미 제8군 작전명령으로 하달되었다. 즉 "제8군은 현 접촉선을 공격개시선으로 하여 9월 16일 09:00시 주공을 대구-김천-대전-수원을 연하는 축선을 따라 공세로 이전한 다음, 축선상의 적을 격멸하는 동시에 신속히 제10군단과 연결한다."는 것이었다.[52]

인천상륙작전 시 유엔군의 군사전략은 기동전략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략의 목표 측면에서 보면 유엔군은 적의 전투수행의지(심리적 표적)를 무력화시켜 승리를 달성하고자 했다. 맥아더가 낙동강 방어와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한 것은 적진 깊숙이 침입한 상대방의 후방에 대한 공격을 통한 적의 전투수행의지 무력화였다. 맥아더는 서울이 적의 주요 병참선의 목이며, 상징적으로도 적의 전투수행의지를 무력화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지역으로 판단하고 이를 공격하고자 했다.

전략의 수행방법 측면에서는 먼저 유엔군은 강점을 회피하고 약점을 공격하고자 했다. 맥아더는 북한군이 낙동강선에 가용병력을 모두 배치하여 오직 부산을 바라보며 전 정면에 전투력을 집중하는 동안, 적의 후방에 대한 공격을 계획하였다. 즉, 적의 강점을 회피하고 약점을 공격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기동템포의 우위를 달성하고자 했다. 사실

52) Roy E. Appleman, *United State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Yalu*, p.398.

www.dbpia.co.kr

낙동강 전선에 북한군과 유엔군의 전력은 이미 역전된지 오래였다. 하지만, 전장의 주도권을 가진 북한의 지속적인 공세 앞에 유엔군은 계속 수세를 견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군 정면에 대한 공격으로 전황을 순식간에 뒤집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공자인 북한군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후방에 전투력을 투사함으로써 기동템포의 우위를 달성하여 순식간에 전쟁의 주도권을 유엔군으로 가져오고자 했다.

4. 북한군의 전쟁수행과정 분석

가. 병력부족으로 인한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전투수행 실패

북한군은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과 서울 방어를 위해 최소한의 병력만을 전용하면서 현재의 낙동강 전 전선에서 유엔군을 계속 공격하여 남한 전역을 석권하고자 했다. 이 같은 북한군의 조치는 어느 한 곳에서도 충분한 병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모전략의 성공요인 중 하나인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전투를 통한 물리적 파괴의 누적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인천에 상륙한 미 10군단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서울에 이르는 접근로에 다수의 견고한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미 10군단의 전력을 소모시켜 더 이상 공격작전을 지속할 수 없도록 해야했다. 하지만, 인천 지역은 대규모의 미군이 상륙할 경우 이에 효율적이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다. 당시 인천지역의 방어배치 상태를 살펴보면 76mm 포 7문, 37mm 고사포 6문과 약 3,000명의 병력을 보유한 보병연대가 서쪽 항구를, 76mm 3문, 37mm 포 2문으로 증강된 해군육전대 2개 중대가 월미도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다. 또한 인천 지역의

www.dbpia.co.kr

방어진지는 약 34개의 토치카가 있었지만, 진지공사는 40~50%만 이뤄진 상태였다. 해상의 주요 접근로에는 부유기뢰 26개가 설치되었고 인천항에서 강화도와 김포에 이르는 해안지대에는 제107경비연대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병력과 화력은 미약했다. 당시 인접한 다른 경비연대인 제106경비연대는 8월말 충청도 해안방어를 위해 홍성으로 이동한 상태였다.[53]

이러한 가운데 9월 13일과 14일에 미국 순양함들과 구축함들이 인천 앞바다에서 포격을 실시하자 서울의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9월 14일 새벽 제18보병사단 1개 연대(22연대)를 서울에서 인천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 부대는 서울-인천 가도에서 미 공군의 폭격에 의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인천에 도착하지도 못했다.[54] 사실상, 인천은 미군의 대규모 상륙작전을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다.

반면에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된 유엔군은 당시 인천과 서울에 있던 북한군을 압도하는 것이었다. 순양함과 구축함을 비롯해 260척의 함선이 동원되었으며, 상륙부대는 미 제1해병사단, 미 제7사단, 국군 제1해병연대, 국군 제17연대 등으로 구성되어 지원부대를 포함한 전체 병력 규모는 7만 5천명에 달했다. 특히 화포는 1,600문, 탱크는 500대가 넘었다. 상륙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500여대의 항공기가 동원되어 수백 소티의 항공폭격을 통해 상륙작전이 지원되었다.

이러한 병력차이에 의거 인천지역이 유엔군에게 쉽게 점령되었다. 하지만 북한군은 9월 20일부터 서울지역에서 필사적인 방어작전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군은 9월 20~21일 2일 간의 치열한 전투 후에 영등포를 점령할 수 있었다. 북한군은 후방에서 도착한 모든 가용부대를 연희동 일대에 동원하여 미군의 공격을 저지하고자 했다. 북한

53)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p.243.
54)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p.246.

www.dbpia.co.kr

군은 미 제5해병연대와 국군 제1해병연대에 맞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4일 간 서울 서측방을 방어했다. 하지만 서울 서측방과는 달리 서울의 남쪽지역까지 방어하기에는 가용부대가 부족했다. 이를 파악한 미 제10군단장 알몬드 장군은 9월 25일 미 제7사단과 국군 제17연대를 한남동과 뚝섬일대로 도하하도록 하여 북한군의 방어가 가장 취약한 남산일대와 서울 동북지역의 주요능선을 점령하고 서울 중심시가지로 포위망을 좁혔다. 북한군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시가지의 바리케이드와 건물을 활용하여 마포부터 서울 중심부까지 치열한 방어전을 수행했지만 유엔군의 진격을 저지할 수는 없었다.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한 미 제10군단은 9월 28일 서울을 점령했다. 인천에서 서울을 점령하는데 무려 13일이 걸린 것이다. 이는 맥아더장군이 미 제10군단장 알몬드장군에게 9월 23일까지 서울을 탈환해주길 바랐던 것보다 무려 5일이나 더 지체된 것이었다. 특히, 미군의 전진이 느린 속도로 진행되면서 서울에 배치된 부대들은 내실있는 방어준비를 할 수가 있었다. 특히, 신촌과 마포 일대에서 미 제1해병사단은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 만큼 서울점령도 지연되었다. 유엔군은 북한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전진하였는데, 바리케이드 하나에 1개 대대가 1시간이상 지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55] 이는 미군의 작전수행이 속도보다는 안정적인 전진에 더 초점을 맞추어져 있기도 하지만 그 만큼 경인지역의 방어부대들이 방어작전을 잘 수행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군이 계속 공격작전을 수행하고자 했던 낙동강 전선에서도 병력부족으로 인해 실제로 공격은 고사하고 방어도 어려운 상황이 초래되었다. 인천상륙작전이 실시되기 전까지 북한군은 9월 공세의 연장선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북한군은 포항 – 안강 – 영천 – 다부동 – 왜관 – 현풍 – 창녕 – 영산 등지를 점령하고, 이어 경주 – 대구 –

5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⑥: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p.178.

www.dbpia.co.kr

밀양을 연하는 선으로 공세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공세의 한계점에 도달하여 공격은 지지부진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은 경주와 대구를 점령하고 최종목표인 부산에 도달하자면 새로운 증원부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조치로 9월 13일 경인지구 방어부대인 제18사단과 제87연대, 그리고 독립 제849반전차포연대를 낙동강 전선에 투입하여 대구 북방에 전투력을 보강하고자 하였다.[56] 하지만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하여 낙동강 전선에 증원되던 부대들 상당수가 인천으로 전용되면서 낙동강 전선에서 지속적인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병력은 확보되기 못했다.

결국 북한군은 낙동강선의 공세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낙동강선에서 최소한의 병력을 전용하여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을 물리치고 낙동강선에서 공세를 계속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소극적인 조치로는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을 물리칠 수도 낙동강선에서 공세를 통해 부산으로 진격할 수도 없었다. 오히려 인천방면과 낙동강선 방면에서 모두 병력부족으로 인해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전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양쪽 방면에서 모두 유엔군에게 물리적 파괴를 지속적으로 강요하지 못해 효율적인 소모전략을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던 것이다.

나. 전선축소 미실시로 인한 병력과 화력의 효율적 집중 실패

북한군이 인천상륙작전에서 패배한 또 다른 요인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낙동강 전선을 신속하게 축소하여 병력과 화력의 효율적 집중이 가능한 새로운 전선을 구축하고 이로 인해 절약된 병력과 화력을 서울 방어에 투입하지 못한 것이었다. 즉, 소모전략의 성공요인 중 하나인

5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1권(서울: 군인공제회, 2001), p.228.

www.dbpia.co.kr

병력과 화력의 우위확보를 통한 파괴템포의 우위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었다.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고 북한의 대응을 지켜보던 스탈린은 9월 18일 소련군 총참모부와 소련군사고문단을 통해서 낙동강 전선에서 4개 사단을 서울로 전용하여 서울 주변의 방어를 강화하도록 김일성에게 조언했다.[57] 스탈린은 북한군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병력과 장비가 취약한 후방지역의 부대들을 끌어 모아서 서울 방어에 투입하는 것은 유엔군에 맞서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최소한 유엔군의 공격에 대응하여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한 최소한의 병력은 4개 사단 정도로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김일성은 스탈린의 지시와는 다른 지시를 내렸다. 김일성은 전선사령관 김책에게 "현 전선을 유지하는 동시에 최대한 많은 병력을 수원지역으로 전용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책은 제105전차여단과 제9사단 제87연대를 수원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58] 이는 전투력이 강한 주력 사단 4개를 서울로 투입하여 미군을 격퇴 또는 서울을 방어하겠다는 스탈린의 최초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이러한 김일성의 조치는 오히려 낙동강 방어선의 병력과 화력의 밀도를 더욱 떨어뜨리면서, 서울 방어에 필요한 충분한 병력과 화력도 지원하지 못하게 만든 조치였다.

이처럼 김일성과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모스크바의 조언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북한군의 누구도 스탈린이 왜 4개 사단을 서울로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으며, 4개 사단을 서울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57) "Telegram from Fyn Si(Stalin) to Matveyev(Army General M. V. Zakhrov) and Soviet Ambassador to the DPRK T. F. Shtykov, approved 27 September 1950 by Soviet Communist Party Central Committee Politburo",Translated by Alexandre Y. Mansourov, *CWIHP Bulletin*, Issues 6-7, pp.107-108.

58)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육군본부 역, 『한국전쟁 제5권: 유엔군의 반격과 중공군의 개입』, p.102.

www.dbpia.co.kr

조치가 필요한지 몰랐다. 낙동강 전선에 전개된 13개 사단들 중 4개 사단을 서울로 보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선을 축소시켜야 했다.

이미 중국은 전선을 축소하여 새로운 전선을 형성할 필요성에 대해서 북한에 조언한 상태였다. 1950년 8~9월 초순 모택동은 두 차례에 걸쳐 북한대표를 만나 전쟁 상황 전개에 대해 협의했는데, 그는 북한군은 모든 전선에 가용 군사력을 전개하여 적을 몰아내는 방식으로 영토를 확보하고자 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북한군은 예비병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가용 군사력을 전투에 투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하고, 향후 반격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퇴각을 통한 새로운 전선의 구축을 신중하게 판단해 볼 것을 강조했다.[59] 즉, 우발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퇴각하여 방어가 가능한 곳에 새로운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스탈린의 4개 사단 전용 지시와 모택동의 조언은 낙동강 전선의 유지보다는 전선을 축소하여 후방에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고, 절약된 병력을 서울 방어에 투입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군은 전선축소에 의해 4개 사단을 만들기 보다는 낙동강 전선에 전개되어 빼낼 수 없는 사단을 제외한 전선사의 예비부대만 서울로 북상시켰던 것이다. 결국 병력과 화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전투를 수행할 수 없었던 인천과 서울의 방어는 점점 어려워졌고 9월 21일 미 제1해병사단이 영등포와 노량진을 점령하고 9월 28일 서울이 함락됨으로써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은 퇴로가 차단되었고 이는 결정적인 패인이 되었다.

만약, 북한군이 신속하게 낙동강 전선을 축소하여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하고, 스탈린이 지시한 대로 4개 정규사단이 낙동강선에 서울지역에 조기 투입되었다면 전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분명히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낙동강에서 4개 사단의 서울

59) 이상호, "인천상륙작전과 북한의 대응", 『군사』 제59호(2006), p.157.

www.dbpia.co.kr

이동 실패에 따른 서울 함락에 대해 스탈린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 조선인민군의 전선, 특히 서울지구 및 남동부에서 며칠사이 형성된 심각한 상황은 전선사령부, 군단 및 부대사령부의 전술적 실패를 보여주는 결과다. 이런 실패 책임을 한층 더 져야 할 자들은 바로 우리가 파견한 군사고문단이다. 그들은 주요전선으로부터 4개 사단을 서울 지구로 철수시키라는 총사령관의 명령에 뒤늦게 대응, 아까운 7일을 낭비했다. 이것은 서울 근교에 주둔해 있던 미군에 전술적인 이득을 주었다. 이들 사단을 적절한 시기에 철수시켰다면 서울 근교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었다. 서울 지구 전투에 대신 투입된 대대나 독립연대 등 부대들은 준비가 부족했고 사령부와 제대로 연락조차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남동방면에 도착한 사단들은 미처 준비를 갖출 틈도 없이 전투에 투입되었다. 이것은 미군에게 손쉬운 승리를 헌납한 것이다. 4개 사단을 전선에서 서울의 북동과 동쪽 방위선으로 제대 이동시켰다면 그들은 반나절의 휴식이라도 취한 상태에서 전투에 투입됐을 것이다.[60]

낙동강선에서 유엔군이 반격작전을 개시한 9월 16일부터 1~2일 동안에 낙동강선의 북한군은 유엔군의 진격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저지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이미 9월 공세로 인해 전투력이 거의 고갈되었던 낙동강선의 북한군에게 병력의 증원이나 전선의 축소 없이 유엔군의 공격을 장기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더구나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의 저지를 위해 가용예비대 마저 모두 서울로 이동한 상황이었다. 유엔군의 반격이 시작된지 3일이 지나자 낙동강 전선의 여러 곳이 돌파되고 낙동강선의 북한군은 붕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9월 21일 인천상륙이 소식이 전해지고 9월 22일부터 미 제8군의 대대적인 추격작전이 시작되자 완전히 와해되어 무질서하게 북으로 철수했다.

---

60)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제78회의 속기록 P78/73(1950년 9월 27일자 결정), 폰드 3, 목록 65, 문서 827, 리스트 90-93, A. V. 토르쿠노프,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pp.161-165.

www.dbpia.co.kr

다. 지휘체계의 단절로 인한 병력과 화력의 효율적 운영 불가

전쟁수행에 있어 지휘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소모전략에 있어 지휘체계의 유지는 더 중요하다. 그것은 소모전략에서 승리는 적보다 더 많은 병력과 화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 병력과 화력을 효율적으로 적에게 투사하기 위해 중앙집권화된 지휘통제를 통해 달성되기 때문이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모전략의 성공요인 중의 하나가 병력과 화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앙집권화된 통제에 의한 전쟁수행인 이유이다.

인천상륙작전 시 북한군은 병력과 화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중앙집권적 통제 측면에서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개전 이후 북한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진출하면서 김책이 위치한 전선사령부와 김일성이 위치하 최고사령부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고 그에 따라 지휘통제에 많은 취약점이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이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 전선은 낙동강 전선에 국한되어 있었고, 낙동강 전선은 김책의 전선사령부에서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유엔군에 의해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되자 그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지휘통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되었다. 유엔군의 인천상륙에 따라 북한군은 인천 및 서울전선과 낙동강 전선의 2개 전선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통제해야 했고, 그 상황 속에서 전선을 조정하고 병력을 적재적소에 전용하여 운용해야만 했다. 이는 지휘체계가 원활한 상태에서도 힘든 일이지만, 이 시기 북한군의 지휘체계는 거의 단절되어 있었다.

특히, 유엔군이 인천을 점령하고 서울로 진입하기 시작하던 9월 20일부터 서울을 점령한 이후인 9월 29일까지의 10일 동안 9월 21일, 23일, 25일의 3일간을 제외하고는 낙동강 전선의 전선사령부와 최고사령부간의 통신 연락이 단절되었다. 당시 평양에 있던 북한군의 최고

www.dbpia.co.kr

사령부는 서울지역의 전황은 보고받고 파악할 수 있었지만 낙동강 전선을 담당하고 있던 김책의 전선사령부와는 지속적인 지휘통신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다만 소련군만이 북한군 무선통신을 감청하여 어느 지역에서 전투가 수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61] 즉, 김일성은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에게 제대로 된 지시를 내릴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지휘체계의 단절은 인천 및 서울전선과 낙동강 전선에서 유엔군의 공격을 동시에 방어해야 했던 북한군에게는 치명적이었다. 이미 유엔군에 비해 병력과 화력에서 열세였던 북한군의 입장에서 제한된 병력과 화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2개의 전선에서 방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휘체계의 원활하게 작동 및 유지되어야 했지만, 오히려 가장 중요한 국면에서 지휘체계는 단절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전선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병력과 화력을 적시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 일례로 인천 및 서울지역 대한 제대로 된 방어계획이 하달된 것은 인천에 유엔군이 상륙한지 2일이 지난 9월 17일이었고, 낙동강 전선에서 유엔군의 공격에 대응하여 전선을 금강선을 연하여 조정하는 지시가 18일에 내려갔지만, 18일에는 이미 낙동강 전선이 돌파당한 상태였다. 낙동강 전선이 돌파된 이후인 20일부터는 지휘체계가 거의 단절된 상태가 됨으로써 서울 이남에 있던 북한군 주력을 이용한 효과적인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했고 결과적으로 무질서하게 패주하게 되고 만 것이다.

61)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p.256.

www.dbpia.co.kr

5. 유엔군의 전쟁수행과정 분석

가. 핵심취약점의 식별과 군사력 집중(강점회피, 약점공격)

인천상륙작전 시 유엔군의 군사전략은 기동전략에 기반한 것이었다. 기동전략의 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강점을 회피하고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다. 적 군사력의 직접적인 파괴를 통해 승리를 추구하는 소모전략과는 달리 기동전략은 종심돌파나 우회기동을 통해 적의 강점을 회피하고 약점을 공격함으로써 적을 마비 또는 와해시키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당시 유엔군이 상륙지점으로 선정한 인천과 핵심목표로 설정한 서울은 전략적 수준에서 북한군의 핵심취약점이었다. 8월 공세와 9월 공세의 실패로 인해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은 많이 약해져 있었지만,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 주력은 유엔군의 입장에서 볼 때, 분명히 북한군의 강점이었다. 당시 낙동강 전선에 있던 북한군 병력은 9월 공세 직전을 기점으로 보병 13개 사단, 1개 전차사단, 2개 기계화 여단, 그리고 1개 치안연대를 포함하여 총병력 97,850명으로 사실상 북한군의 주력이 배치되어 있었다.[62] 더구나 북한은 9월 공세를 위해 고령에 있던 예비사단인 제10사단과 북한지역에서 증편되어 남하한 제7사단, 그리고 9사단(-)까지 낙동강 전선에 투입한 상태였다.[63] 따라서 낙동강 전선에는 북한의 가용한 거의 모든 정규사단들이 모여 있었다.

따라서 낙동강선에서 반격을 개시하는 것은 적의 강점에 대한 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수반하게 되고 성공의 가능성도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었다. 반면에 북한군은 모든 전투력을 낙동강선 돌파를

62) Roy E. Appleman, *United State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Yalu*, p.527.
63) FEC, G-2, *The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Section 5, pp.64-70.

www.dbpia.co.kr

위해 낙동강선 전 정면에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낙동강선 후방의 남한 지역은 거의 무방비 상태였다. 따라서 대규모 상륙작전을 통한 우회기동을 통해 낙동강선 이외의 지역에 대해 공격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적의 약점에 대한 공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인천과 서울을 포함한 경인지역은 낙동강선 북한군에 대한 보급을 담당하는 핵심요충지이며 남한의 수도라는 상징성을 가져 북한군에게 큰 군사적·심리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취약점이었다.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을 계획한 주요 이유 중의 하나도 수도 서울을 조속한 시일 내에 탈환하기 위해서였다. 실제로 맥아더 장군은 인천상륙작전 시 알몬드 장군에게 9월 25일까지는 서울을 점령하도록 강조하였다.[64]

또한, 인천과 서울은 핵심취약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낙동강전선에 집중한 나머지 방어의 강도는 약했다. 유엔군은 사전에 인천지역에 대한 정찰을 통해 월미도와 인천항 주요지역의 방어배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했다. 또한 유엔군은 8월 18일과 20일에 덕적도와 영흥도에 1개 중대 규모의 정찰대를 투입하여 정보를 수집했다.[65] 이 정찰을 통해서 유엔군은 인천에는 유엔군의 상륙을 막을 만한 병력과 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66] 당시 서울—인천 지역에서 활동 중인 북한군은 약 10,000여 명으로 판단되었다.[67] 유엔군은 정확한 정보를 통해 북한군의 약점을 식별하였던 것이다.

유엔군은 인천 및 서울을 북한군의 약점으로 식별하고 그 약점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한 작전활동도 실시했다. 미 공군은 제10군단의 인천상륙에 대항한 북한군의 방어력을 저하시키고 인천지역이 상륙대상이라는 것을 기만하기 위해 다른 해안지역에 대한 사전 포격을 실시했다.

---

64) Roy E. Appleman, *United State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Yalu*, p.527.
65) 중앙일보사 편, 『민족의 증언』제2권(서울: 을유문화사, 1977), pp.394-403;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83), pp.87-88.
66) 이창건, 『KLO의 한국전 비사』(서울: 지성사, 2005), pp.53-71.
6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⑥: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p.97.

www.dbpia.co.kr

특히, 항공폭격의 강도를 신중하게 조절하였는데, 상륙예상 지역이었던 진남포와 인천, 그리고 군산 지역에 대한 항공폭격의 강도를 30:40:30으로 배분하여 실제 상륙지역인 인천이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동해안에서도 주문진, 삼척 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함포사격을 실시하였다. 9월 12-14일에는 군산, 목포, 포항 등에 소규모 특수부대를 통한 정찰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여 북한군의 관심과 주의를 분산시켰다. 그리고 북한군이 상륙작전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유엔군에 의한 상륙작전은 기정사실이며 그 작전 개시는 10월 중이 될 것이라고 거짓정보를 흘렸다.[68]

그리고 미 극동공군은 9월 4일부터 인천을 고립시키기 위해 폭격을 실시하였다. 주요 목표는 인천 반경 50km 이내의 도로와 교량 그리고 터널과 조차장 등이었다. 이어서 9월 9일부터 철도망 폭격을 시작하여 매일 B-29 1개 연대로 원산 – 서울간의 경원선과 평양-서울간의 경의선 정거장 등을 폭격하였다. 그리고 B-29 2개 연대는 철도 선로를 폭격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게 했다. 9월 11일에는 신막비행장을, 12일에는 평양비행장을 폭격하였으며, 상륙전일인 14일에는 폭격기 60대를 투입하여 인천으로 향하는 모든 철도망을 파괴하여 적 병력과 보급품 등의 수송을 일체 불가능하게 하였다.[69] 이 같은 미 극동공군의 폭격은 2가지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평양 및 원산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보급로를 차단하여 상륙예정 지점인 인천은 물론 낙동강 전선에 대한 증원 및 보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인천상륙작전과 낙동강선에서의 반격작전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었다. 다음으로는 상륙지점인 인천에 대한 서울방면에서의 지원을 차단하여 인천을 고립시킴으로 초기 상륙작전이 성공을 보장할 수 있었다.

68) 김광수, "인천상륙작전은 기습이 아니었는가?", pp.234-237.
6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⑥: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p.124.

www.dbpia.co.kr

나. 우회기동(美 10군단)과 종심돌파(美 8군)의 순차적 작전수행 성공

기동전략에 있어 또 하나의 성공요인은 기계획된 작전단계의 순차적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동전략이 추구하는 적의 마비 또는 와해를 위해서는 정밀한 단계별 계획이 필요하며, 각 단계의 작전성공은 전 단계의 성공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인천상륙작전은 단지 인천에서의 상륙만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계획된 대규모 작전이었다. 유엔군은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실시 직후인 9월 16일 낙동강선에서도 대규모 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반격작전의 핵심은 낙동강선을 돌파하여 종심 깊은 돌파를 통해서 인천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상륙부대와 전선을 연결하는 것이었다. 즉, 인천상륙작전을 통한 인천으로의 우회기동과 낙동강선 종심돌파의 결합이었다. 따라서 인천상륙작전은 1단계로 인천에 대한 상륙작전 성공과 서울 점령, 2단계로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반격과 방어선 돌파, 마지막 3단계로 상륙부대와 돌파부대의 연결로 완성되는 것이었다.

9월 15일 인천에 대한 상륙은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음 단계는 낙동강 전선의 돌파였다. 인천상륙작전의 개시와 함께 낙동강 방어선에서 반격을 실시하기 위해 미 제8군은 반격계획을 수립하고 9월 15일부로 예하부대에 하달하였다. 미 제8군의 계획은 주공인 미 제1군단에게 대구 북방 일대에서 반격으로 나가 낙동강을 건너 김천 – 대구 – 수원 선으로 진격하여 북한군 제1군단의 퇴로를 차단하는 동시에 인천상륙작전 부대인 미 제10군단과 연결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70]

9월 15일 인천에 대한 상륙작전이 실시되고, 이어서 9월 16일 아침 반격작전이 개시되었다. 하지만 주공군단인 1군단의 주공사단이었던

70) 미 제8군은 주공을 1군단에 두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 10군단과 연결하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이다. 둘째, 도로망이 양호하고 파괴부분의 보수가 용이하다. 셋째, 도로망은 돌파구를 확장하는 기갑부대의 운용에 유리하다. 넷째, 돌파부대의 보급지원이 용이하다. Roy E. Appleman, *United State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Yalu*, pp.542-543.

www.dbpia.co.kr

제1기병사단은 9월 18일까지도 제대로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5기병연대는 왜관 남서 5km 지점인 253고지, 371고지 일대의 적의 주진지를 돌파하지 못했고, 제8기병연대도 오히려 적의 공격을 받기도 하는 등 다부동 5km 남쪽의 적 진지 앞에서 고전하고 있었다. 그나마 좌익의 제5연대전투단만 왜관 남쪽 4km 금무봉(268m)까지 진출해 있었다.[71] 이에 따라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여 상륙부대와 연결한다는 애초의 계획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만약 낙동강 전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북한군은 전선을 유지 또는 조정하면서 효과적으로 상륙부대에 대한 방어를 실시할 수도 있었다.

미 제1군단은 제1기병사단의 진출 부진으로 군단의 작전이 지연되자 작전계획을 변경했다. 예비인 미 제24사단을 군단 서측방으로 투입하고 제5연대전투단을 배속하여 신속히 전선을 돌파하고 김천 방향으로 전진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전계획의 변경을 통해 미 제24사단 예하 제5연대전투단은 9월 19일 오후 왜관에 진입할 수 있었다. 국군 제1사단도 다부동–상주 도로상의 상장동까지 진출하여 북한군의 상주 방향 철수로까지 차단하였다.[72] 이로서 국군 제1사단은 북한군 제2군단의 가용 철수로 2개를 모두 차단하여 지대 내의 적을 포위 섬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73]

미 제8군사령관 워커 장군은 북한군의 전선이 붕괴되기 시작하자

71)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 (上)』, p.439.

72) 국군 제1사단은 9월 17일 제15연대와 제11연대가 가산선 동측방의 횡격실 능선(583고지, 655고지)으로 진출하였고 동측방의 제12연대는 수색작전의 결과 예상전진로이며 북한군 제1사단과 제8사단의 전투지경선인 계곡에 적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전진했다. 9월 18일 제15연대는 가산의 적을 고착하고 우측으로 기동하여 중앙의 중요 감제고지 558고지를 점령하였다. 제11연대(-)는 이 고지 우측을 돌아 계곡접근로 중간지점 매곡동 일원으로 진출하였다. 제12연대는 9월 18일까지 10km를 기동하여 다부동–군위 도로상의 교차점 갈뫼를 점령하였다. 이 도로의 차단으로 대구 북방에 투입된 적 제1, 제3, 제13사단 전체의 동측 퇴로가 차단되었다.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 (上)』, pp.440-441.

73) 국방군사연구소,『한국전쟁 (上)』, pp.441-442.

www.dbpia.co.kr

9월 22일 전선의 돌파에 이어 적의 부대를 추격하여 전과확대로 작전을 전환하기 위해 '추격명령'을 하달하였다. 이 명령에서 "모든 지휘관들은 필요한 곳에서 측방경계를 고려하지 않고 진격해도 좋다"는 점을 강조하였다.[74]

다부동 전선을 돌파하고 9월 22일 추격명령을 받은 미 제1기병사단장은 예하의 제7기병연대를 특수임무부대로 편성하고 이를 선두로 추격작전을 전개하였다. 제7기병연대장은 린치특수임무부대를 구성하고 인천에 상륙한 미 제10군단과의 연결작전을 개시하였다.[75] 린치특수임무부대는 낙동리-상주-청주-천안-오산을 연하는 170km를 11시간만에 주파하여 9월 26일 22시 제10군단 예하 미 제7사단 제31연대와 접촉하였다.

이로써 인천에 상륙한 미 제10군단과 낙동강선에서 종심돌파를 통해 북상한 미 제8군이 연결되었다. 미 제1기병사단의 종심돌파와 연결작전을 통해 낙동강선의 북한군 제1군단과 제2군단은 완전히 양분되었고, 낙동강선의 북한군 전 부대는 저항의지를 상실하고 완전히 와해되어 북으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유엔군의 계획했던 각 작전단계의 성공 때문이었다. 만약 인천상륙, 서울점령, 낙동강선 돌파, 상륙부대와 돌파부대의 연결로 이어지는 순차적인 작전수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작전의 경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

다. 기동템포 우위 달성을 통한 적의 전투의지 와해 및 무력화

유엔군은 인천상륙작전 시에 기동템포의 우위를 달성하였고 이를 통해서 북한군의 전투의지를 와해 및 무력화할 수 있었다. 기동템포의

74) Roy E. Appleman, *United State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Yalu*, p.573.
75) 1st Cavalry division, War Daily, 26 September 1950.

www.dbpia.co.kr

우위는 적이 아군의 행동에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상륙작전이 시작될 무렵의 북한군의 전투수행의지는 많이 저하되어 있었다. 9월 공세가 끝날 무렵 북한군의 1개 사단의 병력은 평균 5,000명 정도였으며, 각 사단 병력 가운데 70%는 점령지에서 강제 동원한 의용군들이었다. 이들은 전선에 투입되기 전 1~2주간의 도수훈련 정도만 이수한 신병들이었다. 식량부족으로 사기도 매우 낮았다.[76] 이처럼 이미 전투수행의지가 약해진 북한군에게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낙동강 전선의 붕괴는 치명적이었다. 더구나 미 1기병사단에 의한 종심돌파와 연결작전은 북한군의 전투수행의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낙동강 전선의 북한군은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퇴로가 차단된 북한군 제2군단의 전선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가운데 9월 21일에는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하여 서울로 진격 중이라는 소식이 전파되면서 북한군의 전쟁수행의지는 완전히 와해되었다.

당시 북한군 문화사령부 부사령관 김두환이 작성한 전투명령을 통해서 당시 북한군의 전쟁수행의지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 김두환은 전투명령에서 "적과 전투가 지속됨에 따라서 지휘관은 자기 대오를 장악하지 않고 전투원은 군복을 버리고 사복을 착용하며 심지어 군관까지 사복을 입는 현상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77]

또한 9월 29일 슈티코프가 스탈린에게 보고한 전문에서도 북한군의 전쟁수행의지가 이미 마비상태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 김일성은 먼저 내게 전선의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나는 최신 정세상황은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일성은 전선사령부의 보고를 근거로 현 전황에

7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⑥: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p.35.
77) 경비사령부 참모부, 「전투명령 No. 10」, 1950. 9. 29, NA, RG 242, SA 2009, Box 9, Item 66.2, 『5656부대 참모부 상급명령서철』. 이상호, "인천상륙작전과 북한의 대응", 『군사』 제59호(2006), p.170에서 재인용.

www.dbpia.co.kr

관해 간략하게 설명한 뒤,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무슨 조치를 강구해야 하는지 물었다. 김일성은 현재 차령산맥이 적에게 점령당했고 제2군단의 후방철수로 전선공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군 지휘부는 군을 조직적으로 후방에 재배치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군의 규율이 문란해지고 명령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제1군단이 적에게 궤멸되고, 문경과 제천마저 잃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적군은 북한의 제2군단을 노리고 있다.[78]

북한군은 심리적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있었다. 북한군 제13사단의 경우, 사단장의 무모한 지휘에 대항한 항명과 사단 고위 군관의 투항이 계속 되었다.[79] 북한군 제2군단장 무정도 예하 지휘관들에게 진지를 고수할 것을 강조했지만 연대장들이 먼저 진지를 포기하고 철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80] 북한군 제17기계화사단장 정철우 소장은 제2군단장으로부터 영주를 장악하고 북한군 제2군단을 엄호하라는 지시를 받고 9월 26일 영주에 도착했지만 이날 오후에 국군 제8사단이 풍기를 점령하면서 퇴로가 차단되자 스스로 전차와 자주포를 파괴하고 9월 26일 지휘부만 태백산맥을 넘어 단양으로 넘어갔다.[81] 이처럼 유엔군의 신속한 공격은 북한군이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었고 전쟁수행의지가 와해된 북한군은 급격하게 붕괴되었다.

결국, 유엔군은 인천상륙과 낙동강 전선의 종심돌파를 통해 기동템포의 우위를 달성했고 이로 인해 북한군은 유엔군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모두 상실했다. 결국 김일성은 새로운 전선을 형성하고자 하는 구상을 단념하고 9월 23일 모든 부대의 북으로의 후퇴 명령을 내렸다.[82] 북한군의 패주가 시작되었던 것이다.

---

78) 소련군 참모본부 제8국 제600301호 암호문(1950년 9월 29일자), 폰드 45, 목록 1, 문서 347, 리스트 46-49, A. V. 토르쿠노프,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p.165.
79)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 『한국전쟁: 유엔군의 반격과 중공군 개입』, p.141.
80)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제2권, p.62.
8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2권(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34-35.

www.dbpia.co.kr

6. 결 론

지금까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요인을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기동전략과 소모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군사전략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용한 군사적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는 내가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였고 수립된 전략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실행에 옮겼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요인을 군사전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기동전략과 소모전략이라는 개념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군사전략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기동전략과 소모전략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모전략과 기동전략은 전쟁수행의 필수요소인 기동과 화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른 구분이기 때문에 전쟁수행자체에 대한 군사전략적 연구에 접합한 개념이다. 기동전략은 적의 전투수행의지를 격파하여 적의 군사력을 무능화 또는 격멸하는 전략이며, 이에 반해 소모전략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적의 군사적 역량을 소모시켜 이를 통해 적의 전쟁수행의지를 격파하는 전략이다.

기동전략과 소모전략은 각 전략별로 고유의 개념, 특성, 수행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유의 전략적 성공요인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기동전략의 성공요인은 첫째로 강점회피와 약점의 공격, 둘째로 기동템포의 우위 달성, 셋째로 순차적 작전수행의 성공 등이다. 반면에 소모전략의 성공요인은 첫째로 물리적 파괴의 누적 강요, 둘째로 파괴템포의 우위 확보, 셋째로 중앙집권적 통제에 의한 전쟁수행 등이 있었다.

---

82)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6권-조국해방전쟁사 2』, p.44; Roy E. Appleman, *United State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Yalu*, p.572.

www.dbpia.co.kr

이를 토대로 인천상륙작전 시 북한군과 유엔군의 작전수행과정을 분석하였다. 당시 북한군의 군사전략은 유엔군의 낙동강방어선 전 정면에 가용한 군사력을 집중하여 지속적인 공격을 통해 유엔군을 섬멸하려는 소모전략이었다. 하지만 전쟁수행측면에서 병력부족으로 인한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전투수행 실패, 전선축소 미실시로 인한 병력과 화력의 효율적 집중 실패, 지휘체계의 단절로 인한 병력과 화력의 효율적 운영 불가 등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었다.

반면에 유엔군은 북한군의 주력이 집중된 낙동강방어선에서의 반격이 아니라 인천으로의 대규모 우회기동인 인천상륙작전을 통한 기동전략을 추구하여, 북한군의 강점을 회피하고 약점을 공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반격을 통해 우회기동과 종심돌파를 결합하여 기동템포의 우위를 달성, 북한군의 전쟁수행의지를 와해 및 무력화함으로써 북한군을 완전하게 패퇴시킬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북한군은 자신이 추구했던 소모전략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못한 반면, 유엔군은 계획된 기동전략을 완벽하게 수행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몇 가지 함의를 가진다. 첫째, 전쟁의 승패는 상대방의 전략에 대응하여 얼마나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는가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이다. 전쟁이란 결국 적대적인 의지의 충돌이며, 의지의 충돌은 각자가 추구하는 전략형태의 충돌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전략적 충돌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전략에 최적화된 전략의 수립이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지만, 수립된 전략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수립 시에는 항상 그 실행가능성을 냉철하게 평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적인 수행이 보장되도록 해야한다. 셋째, 군사전략의 유형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유형화가 가능

www.dbpia.co.kr

하지만, 어떤 유형의 군사전략이든지 각 유형의 전략적 특성에 맞는 수행방법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각 군사전략 유형별로 가장 적합한 수행방법이 꾸준히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전략의 선택은 각 국가가 처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는 부적합한 전략인 것처럼 보여도 언제 그 전략이 우리에게 가장 최적의 전략형태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원고투고일 : 2017. 10. 9, 심사수정일 : 2017. 12. 14, 게재확정일 : 2018. 2. 22)

주제어 : 인천상륙작전, 군사전략, 기동전략, 소모전략

www.dbpia.co.kr

〈참 고 문 헌〉

1st Cavalry division, War Daily, 26 September 1950.

Antal, John F. "Maneuver versus attrition: A historical perspective", Military Review, Vol. 72(1992):21-33.

Appleman, Roy E. United State Army in the Korean War: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Yalu, Washington, DC, 1961.

Arreguin-Toft, Ivan. "How the weak win wars: A theory of asymmetric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1(2001).

Bennett, D. S. and Allan C. Stam Ⅲ, "The Duration of Interstate Wars, 1816-1985",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0(June, 1996).

Biddle, Stephen. Military Power: Explaining victory and defeat in modern battl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Bradford, Jeffery A."MacArthur, Inchon and the Art of Battle Command",Military Review(Mar/Apr. 2001).

Clausewitz, Carl Von. On War, Translated and edited by M. Howard and p.Paret,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6.

Creveld, Martin Van., Brower, Kenneth S. and Canby, Steven. Air power and Maneuver Warfare, Air University Press, 1994.

Dorschner, Jim. "Douglas MacArthers Last Triumph",Military History(2002).

Dupuy, Trevor N. Understanding War: History and Theory of Combat, New York; Paragon House Publishers, 1987.

Eikmeier, Dale C."Center of Gravity Analysis", Military Review (July-August 2004).

FEC, G-2, The History of the North Korean Army, Section 5:64-70.

Hart, Gary and William S. Lind, America Can Win, Bethesda, Md.: Adler and Adler Publishing, 1986.

Heinl, Robert D. "The Inchon landing: A Case Study in Amphibious

www.dbpia.co.kr

Planning",Naval War College Review(Spring 1998).

Hooker Jr., Richard. ed. Maneuver Warfare: An Anthology, Novato, CA: Presidio, 1993.

Jomini, Baron De trans, The Art of War, Westport, CN: Greenwood Press Publishers, 1862.

Karig, Walter., Cagle, Malcolm W. and Manson, Frank A. Battle Report: The War in Korea, New York: Rinehart, 1952.

Leonard, Robert. The Art of Maneuver, Novato, CA: Presidio Press, 1991.

Liddell Hart, B. H. Strategy, New York: Praeger, 1962.

Luttwak, Edward "The Operational Level of War",International Security, Vol.5 (Winter 1980-81):77.

Luttwak, Edward Strategy: The Logic of War and Pea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Lykke, Jr., Arthur F."Towards an Understanding of Military Strategy",Military Strategy: Theory and Application, Carlisle Barracks, PA: Department of Military Strategy, Planningm, and Operation, U.S. Army War College, 1982.

MacArthur to JCS, 7 July 1950, FRUS. 1950. Vol. Ⅶ: 336.

Mearsheimer, John J. Conventional Deterrenc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Millett, Allan R. Williamson Murray, and Kenneth H. Watman., "The effectiveness of military organizations", In The first world war, edited by Allan R. Miliett and Williamson Murray, Boston: Allen and Unwin, 1988.

Pape, Robert Anthony. Bombing to win: Air power and coercion in war,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Posen, B. R. The Sources of Military Doctrine: France, Britain, and the Germany Between the World War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4.

www.dbpia.co.kr

Schnabel, James F. Policy and Direction: The First Year,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Shtykov, T. F. "Telegram from Fyn Si(Stalin) to Matveyev(Army General M. V. Zakhrov) and Soviet Ambassador to the DPRK T. F. Shtykov, approved 27 September 1950 by Soviet Communist Party Central Committee Politburo", Translated by Alexandre Y. Mansourov, CWIHP Bulletin, Issues 6-7: 107-108.

Stam Ⅲ, Allan C. Win, Lose, or Draw : Domestic Politics and the Crucible of War,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1996.

Stephens, Alan. and Baker, Nicola. Making Sense of War: Strategy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Strange, Joseph L. and Iron, Richard."Center of Gravity: What Clausewitz Really Meant",JFQ, Vol. 34(2004).

Strange, Joseph L. Centers of Gravity & Critical Vulnerabilities, Quantico, VA: U.S. Marine Corps Association, 1996.

Sun Tzu, The Art of War, Translated by S. B. Griffit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63.

A. V. 토르쿠노프, 구종서 역, 『한국전쟁의 진실과 수수께끼』, 서울: 에티터, 1991.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上)』, 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⑥: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9.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1권, 서울: 군인공제회, 20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2권,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200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인천상륙작전』, 서울: 전사편찬위원회, 1983.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전략, 작전지휘 및 동맹관계』,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www.dbpia.co.kr

김광수, “인천상륙작전은 기습이 아니었는가?”, 『전사』 제2호(1999).
김일성,『김일성전집』 제12권 ,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1995.
리처드 심킨(Richard E. Simpkin), 연제욱 역, 『기동전: Race to the Shift』 , 서울: 책세상, 1999.
박명림, 『한국 1950-전쟁과 평화』, 서울: 나남출판, 2002.
박영준, “국가전략과 군사전략: 한국적 군사전략 정립을 위한 방향성”, 『건국 6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2008. 8):229-244.
박창희, 『군사전략론: 국가대전략과 작전술의 원천』,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북한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조선전사 제26권-조국해방전쟁사 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3.
이상호, “인천상륙작전과 북한의 대응”, 『군사』 제59호(2006): 157-170, http://uci.or.kr/G704-001528.2006..59호.001
이창건, 『KLO의 한국전 비사』, 서울: 지성사, 2005.
일본 육전사연구보급회, 『한국전쟁 제5권: 유엔군의 반격과 중공군의 개입』, 서울: 명성출판사, 1987.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1』, 서울: 고려원, 1990.
중국군사과학원 군사역사연구부, 오규열 역, 『중국군의 한국전쟁사 1』,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2.
중앙일보사 편, 『민족의 증언』 제2권, 서울: 을유문화사, 1977.

www.dbpia.co.kr

<Abstract>

An Analysis of Strategic Success Factors during the Operation 'Chromite'

Kim, Dae-sung

In the present study, we derived the success factors of the Operation Chromite through the military strategic analysis focusing on the maneuver and attrition strategies. The maneuver strategy is to neutralize the military power of the enemy through destroying its will to conduct war. In regards to the execution methods, the first is to avoid strong points and attack weaknesses; the second is to achieve superiority in maneuver tempo; the third is the sequential military operation and mission-oriented command. On the other hand, the purpose of the attrition strategy is to exhaust the military capability of the enemy in order to destroy its will to conduct war. In regards to its execution methods, the first is the accumulated destruction; the second is the achieving of destruction tempo; the third is centralized control.

The analysis on the military operation of the North Korean army and UN forces in the Operation Chromite reveals that even though the North Korean army pursued the attrition strategy seeking for continuous attack from the front of Nakdong River perimeter(defense line) of UN forces, it failed at continuous and systematic combat due to the insufficient troops. As it not Only failed at withdrawing its front but at concentrating its troops and firepower effectively even after the landing of UN forces in Incheon, the North Korean army couldn't penetrate the Nakdong River defense line of UN forces nor properly defend its Seoul occupation. On the other hand, the UN forces, by seeking the maneuver strategy through the Operation Chromite, a major bypass maneuver to Incheon, instead

www.dbpia.co.kr

of the counterattack in Nakdong River defense line where the main forces of North Korean army was concentrated, avoided the strengths of the enemy and attacked its weakness. Also, the UN forces, through the counterattack in Nakdong River defense line completely defeated the North Korean army by achieving the advantage of maneuver tempo through a combination of the bypass maneuver and deep penetration.

In conclusion, while the North Korean army wasn't able to successfully run the attrition strategy it pursued, UN Forces perfectly performed its planned maneuver strategy which led the Incheon Landing Operation to victory.

Key Words : Operation Chromite, Military strategy, Maneuver strategy, Attrition strategy

www.dbpia.co.kr